

11월 1~22일 코리아세일페스타

“소비자 지갑을 열어라”...할인 경쟁

전통적인 비수기로 꼽혔던 11월이 '코리아세일페스타' (11월1~22일)를 기점으로 유통업계 대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백화점·대형 마트·편의점 등 유통가는 40~80% 할인율과 경품 행사를 내세우며 사활을 걸었다.

30일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는 지난해 보다 200여 개 늘어난 640여 개 기업이 전국에서 참여한다.

GS25, CU,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세븐일레븐 등 5대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던킨도너츠, 베스킨라빈스, 장수돌집대 등) ▲가전 매장 (삼성 디지털플라자, LG 전자 베스트샵)과 현대리브트, 바디프렌드, 네이처리퍼블릭 등 정권 매장을 둔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할인 부담 특약지침 논란으로 참여가 불투명했던 백화점 업계도 '보이콧'을 철회하면서 행사 규모는 더 커졌다.

하지만 추진위에 따르면 분사 주소를 광주·전남지역에 둔 기업은 10곳에도 못 미친다. '코리아세일페스타' 홈페이지 (koreasalefesta.kr)에서도 참가 기업을 지역별로 안내하지 않고 있어 지역민의 불편이 예상된다.

대한민국 최대 쇼핑 축제...640개 기업 40~80% 세일 롯데그룹, 1조 물량 쏟아붓는 '롯데 블랙 페스타' 기획 신세계, 11월 2일 '썬데이' 20만가지 상품 할인 행사

추진위 관계자는 "광주·전남 지역으로 주소가 등록된 곳은 10개가 안되지만 실제 이 지역에 참가 기업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며 "참가 기업 가운데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은 310여 개에 달해서 광주·전남 시도민이 세일 상품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참가를 확정된 기업들은 본격적인 할인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등 롯데그룹의 10개 유통 계열사는 총 1조원 규모의 물량을 쏟아부은 '롯데 블랙 페스타' (11월1~7일)를 기획했다.

롯데쇼핑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행사로 인한 전년대 매출 증가율은 계열사에서 따라 최대 40%를 기록했다.

롯데백화점은 행사 기간 동안 '파슨스' 리버시블 무스탕 (19만9000원), '소프라' 구스 이불솜 (40만원) 등을 할인 가격

에 판매하고,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찍으면 100% 당첨되는 '엘포인트 모바일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1등급 한우 등심' 100g을 5260원, '1등급 한우 불고기' 100g을 2990원에 내놓고 신선·가공식품, 생활용품 최대 50% 할인한다.

롯데슈퍼는 같은 달 6~7일 롯데카드 결제하는 구매 고객에게 주요 상품 40%까지 할인 판매한다.

'롯데 블랙 페스타' 기간 참여 계열사에서 2회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제네시스 자동차' '아이폰 11' '에어팟 2세대' 등을 증정한다.

신세계도 그룹 차원 행사를 올해 처음 열며 할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신세계는 11월2일을 '대한민국 썬데이'로 정하고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SSG닷컴, 신세계면세점 등 18개 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할인행사를 대대적으로 열 계획이다. 행사 기간 동안 마련한 특가

상품은 20만 가지로, 물량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한다.

㈜광주신세계 등 신세계백화점은 신세계 앱을 설치하고 제휴 카드로 구매하면 뒤 앱 쿠폰과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최대 3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마트에서는 2일 하루 '로지텍 게이밍마우스 럭키박스' 이벤트를 연다. 2만2000개의 럭키 박스에는 2만9900원~19만9000원 상당의 6종의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가 들어있다.

우선 신세계L&B는 와인 럭키박스 행사를 준비했다. 1만9000원짜리 럭키 박스에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40만원 상당의 와인이 들어있다. 와인 럭키 박스는 1200개 한정으로 신세계백화점과 신세계L&B의 와인 전문 매장 '와인앤모어'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64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 쇼핑 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가 11월 1~22일 열린다. 롯데쇼핑 직원들이 관련 행사인 '롯데 블랙 페스타'를 홍보하는 모습. <롯데쇼핑 제공>



“요가·필라테스 배우세요”



주광주신세계 아카데미는 9층 접수처에서 12월7일까지 겨울학기(12월1일~2020년 2월29일) 회원을 모집한다. 요가, 필라테스 등을 배울 수 있는 '오픈 클래스'와 재테크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광주신세계 제공>

샤인머스켓 인기...광주 거래량 10배 꺾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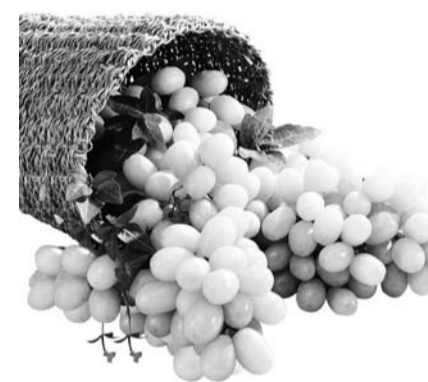
담양·장성 재배 2~3년 후 수확

고급 포도 품종인 샤인머스켓(사진)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광주지역에서 거래된 샤인머스켓 양은 지난해보다 10배 뛰었고 대형마트 과일 매출 순위도 뒤바꾸고 있다.

30일 광주원에농협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8일까지 각하동 농산공판장에서 거래된 샤인머스켓은 2.5t(2500kg)으로 지난 한 해 거래량(246kg) 보다 10배 넘게 급증했다.

껍질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샤인머스켓은 망고맛이나 '망고 포도' 또는 '포도계의 명품'이라는 별명도 붙었다. 주산지는 한국과 일본으로 김천·상주 경북지역은 국내 전체 재배 면적(1459ha) 가운데 54%를 차지한다. 전남지역에서는 담양, 장성 등지에서 지난해부터 샤인머스켓을 식재해 2~3년 정도 뒤에 수확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유통매장들은 앞다퉈 샤인머스켓



을 내놓고 있다.

이마트의 경우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샤인머스켓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50% 증가했다. 2017년에 비하면 지난해 매출도 280%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과일 매출을 부문에서도 샤인머스켓의 영향으로 포도 매출은 처음으로 500억원을 넘어서며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과일 매출 1위는 감귤이었고 2017년에는 바나나가 가장 많이 팔렸다.

포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늘었고 전체 과일 매출에서 포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8%에서 올해 15%로 증가했다.

2년 전만 해도 매출 순위 5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던 포도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샤인머스켓의 인기 덕분이라는 게 이마트 측 설명이다.

이마트는 지난해까지 10%를 밑돌았던 샤인머스켓 산지 직접 매입 비중을 올해 50%까지 늘렸다.

이곳에서 지난해 2만9800원에 팔렸던 샤인머스켓(1.5kg)은 10월 현재 6000원 가량 낮은 2만3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롯데마트몰은 영암에서 생산된 샤인머스켓(3kg 5만9900원·4kg 7만7900원)을 산지 직송 판매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점포 반경 50km 내 생산자 롯데마트에 납품하세요

롯데마트가 점포 반경 50km 이내에서 직접 납품할 수 있는 농·수산물 생산자를 오는 11월13일까지 모집한다.

3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24일~11월13일 국내 생산 과일·채소·수산물에 대한 우수 로컬 생산자 신청을 받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납품 가능 점포는 광주 상무·첨단·수완·월드컵점과 목포·여수·여천·나주·남약점 등 9곳이다.

9개 점포에서 반경 50km 이내에서 직접 납품이 가능한 생산자이면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11월13일까지 참여의향을 받은 뒤 같은 달 22일까지 당사 기준에 따라 서류 평가를 진행한다. 오는 12월2일부터 31일까지는 현장 평가가 이어진다. 최종 선정 생산자는 내년 1월10일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 사이트(company.lottemar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